

제시문 (가) - 순자 성악설

핵심 원리: 성(性)→정(情)→려(慮)→위(爲)

단계	의미	논술 키워드
性 (성)	이기적 생리적 욕구 본성 — 배고프면 먹고 싶음	자기 보존 욕구
情 (정)	상황에 따른 감정 좋다·나쁘다·공포·슬픔	공포·욕망
慮 (려)	상황 인식 후 사고하는 의식적 판단 작용	상황 인식
爲 (위) ★	본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지로 실천하는 행동	의지적 선택

핵심 명제: 본성대로 가면 악, 위(爲)로 거스르면 선
→ 위(爲)=선의 실천, 위(爲) 부재=성·정에 굴복

제시문 (나) - 권력거리(PDI) 이론

핵심 원리: 권력거리와 부하 행동 패턴

	낮은 PDI	높은 PDI
특징	상사를 자유롭게 반박 협의·상호의존 선호	상사에 강한 의존 또는 완전 거부(반의존)
패턴	감정 거리가 작음	의존↔반의존 양극화
권위	복종의 보완으로만 존재 "Authority survives only where it is matched by obedience"	

베르나도트 사례: 권력거리는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프랑스식(높은 PDI)과 스웨덴식(낮은 PDI)의 차이 → 문화충격

핵심 명제: PDI는 국가별 문화 차원으로 다양하며, 리더십은 부하의 복종 방식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제시문 (다) - 드레퓌스 사건

등장인물 비교 - 같은 상황, 다른 선택

	화자 (진실 고발)	비요 장군 (은폐)
상황 인식	처벌 가능성 인식	진실 명확히 알
내적 갈등	두려움 vs 정의	공포 vs 양심
최종 행동	공개 편지로 고발 의식을 상관에게 보고	여론 공포·군의 이익 → 진실 은폐
결과	처벌 위험 감소	책임 커짐, 타인 책임도 뒤집어씀

독해 포인트: 화자는慮(상황 인식) → 爲(의지 실천). 비요 장군은慮까지지는 했으나性·情에 굴복 → 爲 부재

제시문 (라) - 도표 자료

판단 근거 설정 - 핵심 비교 전략

국가	개인 윤리성	권력거리
A	높음	큼
B	높음	작음
C	낮음	작음

학교 측 핵심 분석 포인트:

- ① A vs B 비교 → 윤리성 동일 → 권력거리 효과 파악
- ② B vs C 비교 → 권력거리 동일 → 개인 윤리성 효과 파악

그림 패턴 (상사 부당 지시 대응):

- A: 지시 거부 ≈60% (압도적 최고)
- B: 세 유형 비교적 균등, 문제 제기 후 이행 상대적 높음
- C: 즉시 이행 ≈65% (압도적 최고)

◎ 전체 주제 구조 — 논술의 뼈대

주제개념: 인간 본성과 권력거리가 '윤리적 행동'(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영향

(가) 위(爲) 실천 능력 = 개인 윤리성 + (나) 권력거리 = 문화적 행동 패턴 → (라) 국가별 저항 행동 차이

⊕ 발문 분석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시오."

유형: 설명형 | 도구제시문: (가)(나) | 대상제시문: (다) | 설명 대상: 화자 + 비요 장군 (4쌍)

STEP 1 — 도구제시문 (가) 원리 추출

추출할 설명 도구

爲(위) = 선의 실천 본성(性)과 감정(情)을 억누르고 의지로 반대 방향 행동 → 善 爲 부재 = 性·情에 굴복 → 惡

→ 이 원리를 화자와 비요 장군에게 각각 적용

STEP 2 — 도구제시문 (나) 원리 추출

추출할 설명 도구

낮은 PDI → 상사 반박·협의적 접근 높은 PDI → 의존 또는 반의존 권위 = 복종과 상호보완으로만 유지

→ 이 원리를 화자와 비요 장군에게 각각 적용

STEP 3 — 4쌍 대응표 작성 (답안의 뼈대)

도구 제시문	화자 (진실 고발)	비요 장군 (진실 은폐)
(가) 순자 관점	위(爲)의 실천 처벌 위험(性)과 공포(情)를 處로 인식 → 의지로 이를 억누르고 진실 고발 = 爲	性·情에 굴복 眞실을 處로 인식했으나 여론 공포(情)·자기 보존(性)에 굴복 → 爲 실천 불가 = 은폐
(나) PDI 관점	낮은 PDI 패턴 군(軍) 위계 조직에서도 상관에게 직접 보고 → 공개 고발. 권위에 도전하는 협의적 접근	높은 PDI 패턴 군의 위계질서·권위에 의존하여 조직 이익 선택 → 개인 윤리보다 조직 권위에 복종

STEP 4 — 문단 구성 설계 (600자 안에 4쌍 담기)

- 1 도입 없이 바로 (가) 관점 시작 — "(가)에 따르면 ~이다." 로 원리 1-2줄
- 2 (가) 관점으로 화자 설명 — 위(爲)의 실천 키워드 사용
- 3 (가) 관점으로 비요 장군 설명 — 성(性)·정(情)에 굴복, 위(爲) 부재 키워드 사용
- 4 (나) 관점으로 전환 — "(나)에 따르면 ~이다." 로 권력거리 원리 1-2줄
- 5 (나) 관점으로 화자 설명 — 낮은 PDI·협의적 접근 키워드
- 6 (나) 관점으로 비요 장군 설명 — 높은 PDI·의존 패턴 키워드

△ 흔한 실수 — 이렇게 쓰면 감점

- 4쌍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대폭 감점 (예: 비요 장군을 한 관점에서만 분석)
- "화자는 좋은 사람이고 비요 장군은 나쁜 사람" → 도덕적 판단 금지. 원리 적용만 할 것
-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반드시 개념어(爲, PDI 등)로 paraphrasing

✓ **예시답안 — 설명형 | 도구(가)(나) → 대상(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性)은 이기적 욕구에 기반하며, 려(慮)를 통해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위(爲)를 통해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을 함으로써 선(善)이 이루어진다.

이 관점에서 (다)의 화자의 행위는 위(爲)의 실천으로 설명된다. 화자는 공개 고발로 인한 처벌 위험이라는 자기 보존의 욕구(性)와 여론에 대한 공포(情)를 려(慮)로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의지적으로 이를 억누르고 진실을 고발하는 위(爲)를 구현하였다. 반면 **비요 장군의 행위는 성(性)과 정(情)에 굴복한 결과이다.** 그는 려(慮)를 통해 진실을 인식했음에도 여론에 대한 공포(情)와 자기 보존의 욕구(性)에 굴복하여 위(爲)를 실천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였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권력거리(PDI)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상하 간 감정적 거리로, 낮은 PDI에서는 부하가 상사를 자유롭게 반박하고 협의를 선호하며, 높은 PDI에서는 상사에 대한 강한 의존 또는 반의존의 극단적 패턴이 나타난다.

이 관점에서 **화자의 행위는 낮은 PDI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군이라는 위계 조직 내에서도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보고하고 결국 공개적으로 진실을 고발한 것은,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낮은 PDI의 협의적 접근이다. **비요 장군의 행위는 높은 PDI의 의존 패턴으로 설명된다.** 군의 위계질서와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개인의 윤리적 판단보다 조직의 이익을 선택한 것은,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높은 PDI에서의 의존적 행동 양식이다.

약 567자

☞ **채점 포인트 체크**

- ✓ (가) 관점 — 화자: 위(爲) 실천, 려(慮)→性·情 억제 언급
- ✓ (가) 관점 — 비요: 性·情에 굴복, 위(爲) 부재 명확히 언급
- ✓ (나) 관점 — 화자: 낮은 PDI·협의적 접근 언급
- ✓ (나) 관점 — 비요: 높은 PDI·의존 패턴 언급
- ✓ 개념어(爲, PDI, 협의적)로 paraphrasing — 제시문 그대로 옮기기 없음
- ✓ 도덕적 판단 없이 원리만 적용

⊕ 발문 분석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 A] 저자의 주장을 분석 평가하십시오."

유형: **평가형** | 판단 준거: (나) 권력거리 이론 | 평가 대상: [지문 A] 마키아벨리적 주장

STEP 1 — [지문 A] 명제 추출

[지문 A] 저자의 핵심 주장

명제 1: 두려움 > 사랑 (군주에게 안전) 명제 2: 인간 본성 = 이기적·변덕스럽고 위선적 명제 3: 두려움을 통한 강압적 통치가 효과적 명제 4: 군대 통솔 시 잔인함 필요

→ 통합 명제: "두려움(강압)을 통한 통치가 보편적으로 효과적이다"

STEP 2 — (나)의 판단 준거 확인

(나)에서 추출할 평가 기준

- **준거 1:** PDI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 두려움 효과는 문화 맥락에 따라 상이
- **준거 2:** 낮은 PDI에서는 반의존(counter-dependence) 발생 가능 → 두려움이 오히려 저항 유발
- **준거 3:** 권위 = 복종과 상호보완 → 두려움만으로는 지속 불가
- **준거 4:** 베르나도트 사례 → 존중·학습으로도 효과적 통치 가능

STEP 3 — 판단 준거와 [지문 A] 주장의 대응 관계

[지문 A] 주장	(나) 기준	부합/결여
높은 PDI 문화에서 두려움 통치의 효과	높은 PDI → 의존 경향 → 강압적 통치가 일정 효과	부분 부합
두려움이 보편적으로 안전하다	낮은 PDI에서는 두려움 → 반의존·저항 유발	결여
인간 본성 = 이기적·변덕스러움 (일반화)	부하 행동은 개인 본성보다 문화적 맥락이 결정	결여 (과도한 일반화)
두려움 없이는 통치 불가능	베르나도트 → 상호이해·학습으로도 효과적 통치	결여

STEP 4 — 평가 구조 설계



평가형 핵심 원칙: 타당한 준거(판단 기준)를 먼저 명확히 설정 → 그 준거로 부합/결여 판정 → 근거 논증 결여점이 더 많으므로 → 결론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나 한계가 있다"

△ 감점 패턴

- "지문 A는 틀렸다" → 이유 없이 단정 금지. 반드시 (나)의 원리로 근거 제시
- "마키아벨리는 나쁘다" → 도덕적 단정 금지. 논리적 평가만 할 것
- (나)의 어떤 원리로 평가하는지 판단 준거를 생략하면 대폭 감점

✓ 예시답안 — 평가형 | 도구(나) → 대상[지문 A]

제시문 (나)에 따르면 권력거리(PDI)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상하 간 감정적 거리이다. 낮은 PDI에서는 부하가 상사를 자유롭게 반박하고 협의를 선호하며, 권위는 복종과의 상호보완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높은 PDI에서는 상사에 대한 강한 의존 또는 완전한 거부(반의존)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지문 A]의 저자는 두려움이 사랑보다 군주에게 더 안전하며, 인간이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두려움을 통한 강압적 통치가 보편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나)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저자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타당한 측면으로, 높은 PDI 문화에서 부하들은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가 일정 수준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나)에 따르면 PDI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낮은 PDI 국가에서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는 오히려 반의존(counter-dependence)을 유발하여 저항을 초래하며, 협의와 상호의존을 통해 권위가 형성된다. 두려움이 보편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주장은 낮은 PDI 문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베르나도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권위는 복종과의 상호보완을 통해서만 유지되며, 두려움이 아닌 상호이해와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도 효과적 통치가 가능하다. 셋째, 저자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일반화하지만, (나)에 따르면 부하의 행동은 개인 본성보다 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 따라서 두려움을 보편적 통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 과도한 일반화이다.

약 580자

☞ **채점 포인트 체크**

- ✓ 판단 근거 — (나)의 PDI 개념 정확히 요약 후 평가 기준으로 설정
- ✓ [지문 A] 명제 명확히 제시 후 평가 선언
- ✓ 타당한 측면(높은 PDI 맥락) 인정 — 다면적 평가
- ✓ 결여 ① 낮은 PDI에서 반의존 유발 / ② 베르나도트(상호보완) / ③ 인간 본성 일반화 오류
- ✓ 결론이 단순 "타당/부당"이 아닌 조건부 평가

⊕ 발문 분석

"제시문 (라)의 <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국가별 차이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유형: **도표 해석 + 설명형** | 자료: (라) | 설명 도구: (가)(나) | 핵심: 판단 근거 설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STEP 1 — 판단 근거 설정 (도표 해석의 핵심)

학교 측 공식 분석 포인트 — 이것이 이 문제의 열쇠다

비교 ① A vs B

A·B 모두 **개인 윤리성 = 높음** (동일)
 권력거리만 다름: A=큼 / B=작음
 → A-B 차이 = **권력거리의 순수 효과**

비교 ② B vs C

B·C 모두 **권력거리 = 작음** (동일)
 개인 윤리성만 다름: B=높음 / C=낮음
 → B-C 차이 = **개인 윤리성의 순수 효과**

STEP 2 — 자료 해석 (크고 굵게)

비교	그림 패턴 (핵심)	핵심 차이
A vs B (권력거리 효과)	A: 지시 거부 ≈60% >> B: 지시 거부 ≈30% B: 문제 제기 후 이행 상대적으로 높음	권력거리 클수록 → 지시 거부 급증 권력거리 작을수록 → 협의적 이행 증가
B vs C (윤리성 효과)	B: 지시 거부 ≈30% > C: 지시 거부 ≈10% C: 즉시 이행 ≈65% >> B: 즉시 이행 ≈35%	윤리성 높을수록 → 지시 거부 증가 윤리성 낮을수록 → 즉시 이행 급증

STEP 3 — (가)(나) 관점 연결

(나) 관점으로 A vs B 설명

권력거리가 큰 A에서 지시 거부가 높은 것은 높은 PDI에서 나타나는 **반의존(counter-dependence) 패턴** — 부당한 지시에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행동.
 권력거리가 작은 B에서 문제 제기 후 이행이 높은 것은 낮은 PDI의 **협의적 접근** — 부당함을 인식하지만 과정을 통해 해결 시도.

(가) 관점으로 B vs C 설명

개인 윤리성이 높은 B가 지시 거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爲) 실천** — 자기 보존의 욕구(性)와 처벌 공포(情)를 억누르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
 윤리성이 낮은 C에서 즉시 이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성·情에 따른 행동** — 위(爲) 실천 역량 부족으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라 순응.

< 심층 인사이트 — 학교 측 답안이 놓친 것

A(높은 PDI + 높은 윤리성)에서 지시 거부가 가장 높은 것은 단순히 권력거리 때문만이 아니다. (가)의 위(爲) 역량(높은 윤리성) + (나)의 반의존 패턴(높은 PDI)이 시너지를 일으켜 극단적인 저항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C는 낮은 윤리성(爲 부재) + 낮은 PDI(반의존 없음) = 즉시 이행 극대화.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언급하면 최상위 답안이 된다.

✓ 예시답안 — 도표 해석 + 설명형 | 자료(라) + 도구(가)(나)

<표>에 따르면 국가 A는 개인 윤리성이 높고 권력거리가 크며, 국가 B는 개인 윤리성이 높고 권력거리가 작고, 국가 C는 개인 윤리성이 낮고 권력거리가 작다.

A와 B는 개인 윤리성이 동일하므로, 두 국가의 <그림> 차이는 권력거리의 효과를 보여준다. 권력거리가 큰 A에서는 지시 거부 비율이 약 60%로 B(약 30%)의 두 배에 달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권력거리가 큰 국가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강한 반의존(counter-dependence)으로서의 극단적 거부 패턴이 나타난다. 반면 권력거리가 작은 B에서는 문제 제기 후 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낮은 PDI의 특성이 나타난다.

B와 C는 권력거리가 동일하므로, 두 국가의 차이는 개인 윤리성의 효과를 보여준다. 윤리성이 높은 B의 지시 거부 비율(약 30%)은 윤리성이 낮은 C의 즉시 이행 비율(약 65%)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윤리성이 높은 B의 직원들은 위(爲)를 실천하여 자기 보존의 욕구(性)와 처벌에 대한 공포(情)를 억누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 반면 윤리성이 낮은 C에서는 위(爲)를 실천할 도덕적 역량이 부족하여 성(性)과 정(情)에 따라 즉시 이행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 행동은 위(爲) 실천 역량으로서의 개인 윤리성과, 문화적 상하관계 패턴으로서의 권력거리 양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A의 경우 높은 윤리성(爲)과 반의존 패턴(높은 PDI)이 시너지를 이루어 저항이 극대화된다.

약 575자

📌 **채점 포인트 — 학교 측 답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

- ✓ 판단 준거 설정 명확: "A-B 비교=PDI 효과", "B-C 비교=윤리성 효과"
- ✓ 자료 수치 언급 (약 60%, 약 65%) — 크고 굵게 핵심 수치만
- ✓ (나) 원리: 반의존(counter-dependence), 협의적 접근 — 개념어 정확 사용
- ✓ (가) 원리: 위(爲), 性·情에 굴복 — 개념어 정확 사용
- ✓ **심층 분석:** A의 시너지 효과 언급 → 학교 측 답안엔 없는 내용

문제 정리

x = 조직 문화 지수 (0 =완전 수평 ↔ 1 =완전 수직) | $g(x) = -5x^2 + 2x + 3$ (부서 A 성과) | $h(x) = x^3 + x$ (부서 B 성과) | $f(x) = g(x) + h(x)$ (회사 전체 성과) | $x_3: x \geq m$ 에서 $f(x)$ 최대 (m = 대표의 수평 문화 거부감)

x_1 — 부서 A 성과 $g(x)$ 가 최대인 x

$$g(x) = -5x^2 + 2x + 3$$

꼭짓점 $x = -b/(2a) = -2 / (2 \times (-5)) = 1/5$

확인 $g(0)=3, g(1/5) = -5(1/25)+2/5+3 = -1/5+2/5+3 = 16/5 = 3.2, g(1)=0$

결론 $x_1 = 1/5 = 0.2$ → 약간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부서 A 성과 최대

x_2 — 부서 B 성과 $h(x)$ 가 최대인 x

$$h(x) = x^3 + x$$

$h'(x) = 3x^2 + 1 > 0$ (항상 양수) → $[0,1]$ 에서 순증가 함수

결론 $x_2 = 1$ →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부서 B 성과 최대

x_3 — 전체 성과 $f(x)$ 가 최대인 x ($x \geq m$ 조건)

$$f(x) = g(x) + h(x) = x^3 - 5x^2 + 3x + 3$$

$$f'(x) = 3x^2 - 10x + 3 = (3x - 1)(x - 3)$$

$[0,1]$ 구간 내 부호 분석:

x	0	1/3	1
$f'(x)$	+	0	-
$f(x)$	증가	극대	감소

→ $f(x)$ 는 $[0,1]$ 에서 $x = 1/3$ 에서 유일한 극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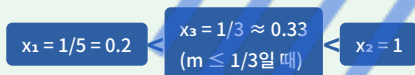
$$f(1/3) = 1/27 - 5/9 + 1 + 3 = 1/27 - 15/27 + 27/27 + 81/27 = 94/27 \approx 3.48$$

m의 값에 따른 경우 분리:

(a) $m \leq 1/3$ 이면: $x = 1/3$ 이 $x \geq m$ 조건 만족 → $x_3 = 1/3$

(b) $m > 1/3$ 이면: $f(x)$ 는 $[m, 1]$ 에서 단조 감소 → $x = m$ 에서 최대 → $x_3 = m$

결과 비교 요약



$m > 1/3$ 일 때: $x_1 < 1/3 < x_3 = m \leq x_2 = 1$

☞ 해석의 핵심 원칙

수학 문제지만 이 문제는 제시문(가)(나)의 개념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최고 점수를 받는다. 숫자를 구한 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직론적으로 설명할 것.

① $x_1 = 0.2$ 해석

부서 A 성과는 약간 수평적인 조직 문화($x=0.2$)에서 최대.

- $g(0)=3 > g(1)=0 \rightarrow$ 완전 수직 조직은 부서 A 성과를 크게 저해
- (가) 연결: 부서 A는 위(爲)적 실천이 가능한 환경(수평적 토의 문화)에서 성과가 높음
- (나) 연결: 낮은 PDI 환경에서 협의와 상호의존 \rightarrow 부서 A 성과 최적화

② $x_2 = 1$ 해석

부서 B 성과는 완전 수직 조직 문화($x=1$)에서 최대.

- $h(x)$ 는 $[0,1]$ 에서 단조 증가 \rightarrow 수직적일수록 성과 향상
- (나) 연결: 부서 B는 높은 PDI 환경(명확한 위계질서)에서 성과 극대화

③ $x_3 = 1/3$ ($m \leq 1/3$) 해석 — 가장 중요

회사 전체 최적 조직 문화 = $x = 1/3$. 이 값은 $x_1(0.2)$ 과 $x_2(1)$ 사이의 절충값.

- 절충: 수평적 성과(부서 A)와 수직적 성과(부서 B) 사이의 균형점
- 비대칭성: $x_3 = 1/3 \approx 0.33$ 은 $x_1 = 0.2$ 에 더 가깝음 \rightarrow 부서 A(수평 선호)의 성과가 회사 전체에 더 큰 영향
- (가) 연결: 위(爲)를 실천할 수 있는 토의·협의 문화(수평적)가 전체 조직 성과에 더 중요
- (나) 연결: 낮은 PDI 요소(협의)와 높은 PDI 요소(위계)의 균형이 필요하되, 협의 쪽이 더 중요

④ $m > 1/3$ 이면 $x_3 = m$ 해석 — 심층 분석

대표의 수평 문화 거부감이 강할수록($m > 1/3$), 최적 조직 문화에서 멀어져 성과가 저해된다.

- $f(m) < f(1/3) \rightarrow$ 대표의 개인적 편향이 회사 전체 성과의 최댓값 달성을 방해
- (가) 연결: 대표의 수평 문화 거부감은 성(性)·정(情)에 따른 행동 — 위(爲)를 실천하지 못해 조직에 최적이지 아닌 결정을 내리는 것과 유사
- (나) 연결: 높은 PDI 성향을 가진 대표가 수평적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높은 권력거리에서의 의존 패턴이 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구조와 동일
- 핵심 메시지: 권위에 기반한 개인적 편향(높은 PDI 성향)이 조직 전체의 합리적 최적화(爲의 실천)를 방해할 수 있다

🔗 총정리 — 2026 연세대 논술의 핵심 메시지

이번 시험은 '인간의 의지(위/爲)'와 '문화적 권력 구조(PDI)'라는 두 축으로 윤리적 행동을 분석한다.

요인	높을 때	낮을 때
인간의 의지(위/爲)	합리적 거부(반의존)	동시 이원(상·하)에 의존
권력거리(나 — PDI)	극단적 거부(반의존) 증가	협의적 문제 제기 증가
문화적 권력 구조	위(爲)적 실천	회사 최적 조직 문화 실패

\rightarrow 위(爲) 실천 능력(개인 윤리성) \times 낮은 PDI(협의의 문화) = 가장 건강한 조직의 조건